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농촌 ”

2021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2021.8.26(목) 09:0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는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참가대상 전국 농촌마을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신청기간 2021년 6월 11일(금)까지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www.raise.go.kr/contest)
※우측상단 QR코드 참조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042-610-1933)

신청분야

마을만들기 3분야

소득·체험 잘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소득·체험 프로그램 우수사례

문화·복지 즐거운 마을을 만들기 위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우수사례

경관·환경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한 경관·환경보전 프로그램 우수사례

농촌만들기 2분야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읍면 단위로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우수사례

농촌빈집·유휴시설활용 우수사례

농촌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

마을	시·군	시·도	농식품부	농식품부
신청 4.7 ~ 6.11	추천 ~6.18	선발 ~ 6.25	현장종합평가 7월 중	결선 8.26

전세금 못준다는 ‘나쁜 집주인’ 대신 보증금 주는 곳 있다

금융 SOS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반환보증 기관별로 보증료율, 가입조건 달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A아파트에 전세를 사는 회사원 김모(41)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룬다. 전세 보증금 4억5000만원 걱정 때문이다. 한 달 뒤에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못 준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서다. 올해 초 일찌감치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얘기했던 김씨는 황당했다. 보증금으로 새로 산 아파트 잔금을 치른 뒤 이사할 계획도 틀어질 수 있었다. 김씨는 불안한 마음에 집주인에게 사정 설명을 했지만, 집주인은 “가진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최근 김모씨처럼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불안해하는 세입자가 많다. 지난해 7월 임대차법 개정으로 전셋값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4억9347만원으로 5



억원에 육박한다. 1년 전(4억6105만원)보다 3242만원(7%) 증가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도 많아졌다. 세입자 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은 지난 4월 기준 356명(누적)이다. 2019년 8월 50명에서 2년도 안 돼 7.1배로 늘었다.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4292억8500만원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는 방법은 있다. 바로 전세계약을 할 때 전

기관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판매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주태금용공사(HF)
상품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전세지킴보증
전세보증금 요건	(수도권)7억원 이하, (지방)5억원 이하	(아파트)제한없음, (아파트 외)10억원 이하	현재 (수도권)5억원이하, (지방)3억원이하, 4분기부터 (수도권)7억원 이하, (지방)5억원 이하
가입가능 기간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전 (올 7월까지 계약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가입)	전세계약 후 10개월 이내	현재 계약기간의 1/4 경과 전, 4분기부터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보증료 (%)	연 0.115~0.154 (이달까지 연 0.023~0.0462)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	연 0.07

자료: 각 사

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이다. 이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는 보증기관이 맡는다.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하면 된다.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판매하는 보증기관은 세 곳이다. 그동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금 반환보증)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서만 판매하다 지난

해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전세지킴보증)가 합류했다. 보증기관마다 상품 보증료율이나 전세보증금 요건, 가입 가능 기간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세입자는 상품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가입해야 한다.

현재 보증료가 가장 저렴한 상품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추는 방안(공공성 강화방안)으로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보증료를 70~80% 인하하기 때문이다. 할인된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과

보증금액에 따라 연 0.023~0.0462%다. 보증료율이 가장 높은 SGI(아파트 연 0.192%, 주택 연 0.218%)와 비교하면 아파트 기준 최대 8배 저렴하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수도권)이 7억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 이 상품의 가입요건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어서다.

전셋값이 치솟아 비싼 전셋집으로 이사한 세입자는 보증료를 더 내더라도 SGI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 이곳 상품만 아파트 보증금을 따지지 않고 가입자를 받고 있어서다. ‘강동전세’ 우려가 있는 단독·다가구의 세입자라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을 눈여겨볼 만하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보증 한도)이 집값의 120%를 넘기지 않는 한 가입할 수 있어서다. 대상은 단독·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이다.

임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디지털 에디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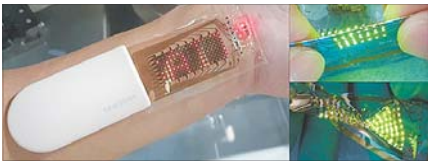
이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일보 디지털 기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피부 따라 늘었다 줄어드는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종합기술원, 학술지에 게재

삼성전자가 고무줄처럼 자유자재로 변형이 가능하면서도 소자의 성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6일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사람의 피부에 부착해 몸의 움직임에 따라 늘었다가 줄어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스트레처블 센서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개발 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학술지인 ‘사이언스 어드밴스



스트레처블 헬스 모니터링 시스템. (삼성뉴스룸)

스에 지난 4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연신(걸이를 늘임)에 따른 기기의 성능 안정성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진은 스트레처블 OLED 디스플레이와 광혈류 측정 센서를 하나의 기기로 통합해 ‘스트레처블 전자 피부’ 폼

팩터로 구성했다. 광혈류 측정이란 발광 다이오드(LED) 등의 빛을 투사해 혈액이 통과할 때 혈관의 팽창과 수축에 따라 빛의 반사율이 달라지는 원리를 맥파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연구진은 향후 스트레처블 기기의 응용처 확대 가능성을 입증했다. 업계 최초로 기존 반도체 공정을 통해 스트레처블 OLED 디스플레이와 광혈류 센서의 기관에 적용하고, 디스플레이와 센서를 30% 늘려도 성능 저하 없이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알림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참가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제8회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의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농촌 마을 만들기를 통해 활력 넘치고 아름다운 농촌을 가꾸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신청 기간: 2021년 6월 11일 금요일까지 홈페이지(www.raise.go.kr/contest)

▶분야: •마을 만들기 3분야 (소득·체험/문화·복지/경관·환경) •농촌 만들기 2분야

(농촌 지역 개발사업 우수사례/ 농촌 빈집·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시상: 수상 지역을 격려하기 위하여 시상금(총 3억1100만원) 차등 지급 •마을 만들기 2억5500만원(금·은·동·입선, 각 3000만·2000만·1500만·500만원) •농촌 만들기 5600만원(금·은·동·입선, 각 1000만·700만·500만·300만원) ▶행사: 8월 26일 목요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042-610-1933)

암 보험, 걱정 없이 산다

수술한 적 있는 나도
칠순이 넘은 나도
(40~75세 가입가능)

당뇨를 달고 사는 나도
암 걸린 적 있는 나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생명보험 협회 심의필 제 2020-02556호 (2020.09.01) <COM-2020-08-32243>

무배당 꼭 필요한 암보험III (갱신형)

간편심사통과시 가입가능

나이가 많아도 (40~75세)	지병이 있어도	수술 병력이 있어도	암에 걸린 적이 있어도 (최근 5년 이내 제외)
---------------------	---------	------------	-------------------------------

보험금도 든든하게
일시금 정액지급

암보험 가입 힘드셨던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080-802-5636

스텝가마솥 1개
상담 완료 시
무료증정!

[이벤트 기간: 2020.08.01 ~ 2020.12.31]

- 접수 후 7일 이내 최소 5분 이상 상담 시 (개인정보 제공)
- 배움은 상담완료 후 약 6주 소요 (1인 1회 한도)
- (당사 사은품 지급 누적 연 2회 초과시 지급 제한)
- 본 상품은 소비자가 기존 3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 조기 품절 시 다른 상품으로 대체 발송됨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단, 소액암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최초 1회보장(가입 2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10년 만기 갱신형으로 최대 100세 까지 보장(갱신 시 보험료 인상될 수 있음)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간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력자 및 고연령자 대상 상품이므로, 의사의 건강진단이나 일반계약 심사를 받을 경우 더 저렴한 일반보험가입이 가능함

•당사의 인수 기준에 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전문 상담원에게 문의해주시고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AIA생명보험 주식회사

그냥 시골이 아니다, 수백년 세월이 뒹뒹 오가는 마을

행복농촌 ■ 경주 옥산마을

행복농촌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중앙일보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진행한 '제7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우수 농촌 마을을 알리는 기획입니다. 15개 마을 중 경북 경주 옥산마을(소득·체험 은상), 충남 보령 성주4리마을(문화·복지 금상), 경북 영덕 옥산마을(경관·환경 은상)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세 마을 모두 울어름에 둘러싸여 좋은 장소입니다. 편집자



경주 옥산마을은 곳곳이 문화재요, 쉼터다. 정혜사지 13층 석탑(왼쪽)은 국보 40호로 지정돼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옥산서원 옆으로는 '세심대'라는 개울이 흐른다. 회재 이언적 선생이 '마음을 씻는 장소'라 하여 이름 붙인 곳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두 개나 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볼 만한 가치는 분명하다. 경북 경주 옥산마을 이야기다. 옥산마을 안쪽에는 수백 년 세월을 버틴 고택과 서원이 자리한다. 조선 시대 나라가 세운 향교가 고을 거점에 들어섰던 것과 달리 서원은 후미진 향촌이나 산수가 빼어난 산골에 주로 자리 잡았다. 덕분에 서원이 틀어 앉은 마을은 하나같이 한적하고 단아하다. 옥산마을도 마찬가지다.

옥산서원엔 한석봉이 쓴 현판

경주 옥산마을은 자옥산(570m)·도덕산(708m)·어래산(571m)이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시골 마을이다. 옥산리, 하곡리, 두류1리를 합쳐 대략 680세대 1600명이 모여 산다. 대부분이 논농사를 짓고, 자투리땅에 깨·콩 따위를 키운다. 우리네 전형적인 시골 모습이다. 지금은 들녘이 온통 초록빛이다.

땅덩이는 커도, 길은 어렵지 않다. 마을 어디를 가나 '옥산서원'을 새긴 표지석과 팻말을 만나게 된다. 조선의 성리학자 회재(晦齋) 이언적(1491~1553)을 가리는 서원으로, 1572년 건립했다. 안동의 도산서원보다 2년이 앞선다. 옥산서원은 2019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아홉 개 서원 가운데 하나다.

옥산서원 너머 독락당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다. 경주 양동마을이 2010년 지정될 때 옥산마을의 독락당도 포함됐다. 독락당은 회재 선생이 벼슬에서 내려와 7년간 기거한 고택이다. 1532년 세웠으니 자그마치 500년 세월을 헤아린다.

"문화재만 200개가 넘습니다, 그냥 시골이 아니라, 수백 년 세월을 뒹뒹 오가는 역사마을이시더."

이종희(68) 옥산마을 사무장의 마을 자랑이다. 괜한 호들갑이 아니다. 옥산

서원은 곳곳이 보물급 유적이다. 서원 강당인 구인당의 처마 현판에 쓰인 '옥산서원'은 추사 김정희의 글씨다. 그 뒤 현판은 한석봉이 썼다. 독락당 뒤편에는 신라 시대에 세운 정혜사지 13층 석탑(국보 40호)이 서 있다.

세계유산 지정된 500년 고택

옥산마을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명 '트랙터 꽃마차'를 타고 마을을 달리는 농촌 투어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옥산3리 농어촌인성학교(교육관)에서 출발해 옥산서원과 독락당을 거쳐 느릿느릿 마을로 돌아온다. 왕복 5km에 불과하고 길도 평탄해 걷는 것도 어렵지 않다.

구석구석 볼거리가 많으므로, 하룻밤 머물다 가는 것도 방법이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숙박 시설이 여럿 있다. 독락당의 고택에서도 잘 수 있다. 다만 예약이 따른다. 음주는 물론 음식 조리도 모두 금지다.

끼니 걱정은 덜어도 좋다. 마을에서 특산물인 참기름과 고추장을 이용한 체험 행사를 연다. 7월 추수를 앞둔 깨밭에는 지금 하얀 깨꽃이 피어 있다. 8월엔 옥수수 체험이 인기다. 옥산서원 초입의 '시골 밥상'처럼 직접 기른 채소, 뒷산에서 캔 나물로 밥상을 차리는 식당도 있다.

옥산서원과 독락당 옆에는 세찬 개울이 흐른다. 예부터 동네 꼬마들이 먹갈던 장소란다. 가재와 버들치 따위가 사는 맑은 물이다. 옥산서원 옆 개울은 나무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너럭바위가 받치고 있어 더위를 피하기가 좋다. 빼어난 경치의 산과 바위에 이름을 붙이길 좋아했던 회재 선생은 이곳을 세심대(洗心臺)라 불렀단다. '마음을 씻는 장소' '근심을 지우는 장소'라는 의미에서다.

경주=글·사진 백종현 기자

baek.jonghyun@joongang.co.kr



옥산서원의 강당 구인당에 나란히 걸린 '옥산서원'과 '구인당' 현판. 각각 추사 김정희와 한석봉의 글씨다(왼쪽 사진). 독락당은 회재 선생이 벼슬에서 내려와 거처했던 장소다. 500년 세월을 버텼다.

Sulwhasoo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SERUM RÉGÉNÉRANT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3중 마이크로 타겟팅으로 한층 한층 탄탄하게

자음생에센스는 인삼의 생명력을 6,000배* 이상 농축한 진세노믹스™로 피부 한 층 한 층 탄력을 채우고·세우고·당겨 탄탄한 피부를 완성합니다.

www.sulwhasoo.com • Customer Care Center 080-023-5454

* 진귀한 인삼 사포닌 CK 함량 비교

집배원 기피지역 1호, 전쟁도 비껴간 별천지

행복농촌 2 단양 보발1리

1차로 좁은 산길 아슬아슬 오르면
해발 500~700m 웅기종기 7개 부락
불편한 게 매력, 틀어박혀 폭 쉬기
너와집·서낭당...마을 곳곳 볼거리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고 만천하 스카이라인에서 남한강을 굽어보며 기념사진을 찍는다. 저녁에는 단양강 잔도길을 걸으며 야경을 즐긴 뒤 단양구경시장에서 마늘 닭강정을 먹는다. 요즘 충북 단양을 여행하는 전형적인 코스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방식의 여행도 가능하다. 이틀테면 가곡면 보발1리 같은 깊은 산골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폭 쉴 수도 있다.

소백산 우아한 능선이 한눈에

보발1리는 시골치고 크다. 인구는 160명에 불과하지만 7개 마을이 보발천 주변 산자락에 흩어져 있다. 멀리 떨어진 마을끼리는 2시간을 걸어가야 할 정도로 척척산중이다. 7개 마을 가운데 가장 변화한 곳은 보발본동이다. 가곡초등학교 보발분교와 마을회관이 있다. 그러나 변변한 슈퍼마켓 하나 없다. 봄, 가을에 제법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는다. 소백산 자락길 5코스가 이곳을 지나는 데다 보발재, 구인사로 이어지는 길이 좋아서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도 많다. 소백산 자락길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을 찾아가 보니 국망봉~비로봉~연화봉으로 이어지는 우아한 능선이 한눈에 담겼다.

보발본동 서쪽에는 성금마을과 말금마을이 있다. 해발 500m 마을까지 올라가는 비좁은 1차선 산길은 운전하기가 쉽지 않았다. 박남진(55) 이장이 “우체부가 제일 싫어하는 마을”이라며 웃었다. 성금마을 입구에는 단양에 하나뿐인 시묘막(侍墓幕)이 있다. 돌아가신 어머니 묘 곁에 한 평 남짓한 움막을 짓고 3년을 지낸 아들 김기선씨의 효심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말금마을에는 희한한 나무가 많다. 우선 산비탈에 소나무 두 그루가 있다. 선나무, 누운 나무다. 수령 200년에 달하는 소나무 한 그루는 우직하게 서 있고, 다른 한 그루는 옆으로 누워 있다. 100년 세월을 산 꽃나무 아래서는 약수가 솟는다. 나무에서 물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괜히 물맛이 더 달큰하게 느껴진다.

피난민 보듬어준 마을

보발천을 기준으로 성금마을·말금마을 건너편에는 피화기마을이 있다. 용산봉(943m) 중턱, 해발 500~700m에 자리한 마을이어서 역시 차 몰고 올라가는 게 만만치 않다. 멀리까지 갈 정도로 지그재그 커브 길이 이어진다. 이렇게 산간벽



충북 단양 보발1리는 소백산 자락길 5코스가 지난다. 자락길을 걷다 보면 국망봉~비로봉~연화봉으로 이어지는 소백산의 우아한 능선과 웅장한 주변 산세가 한눈에 들어온다

최승표 기자



단양 보발1리말금마을에 있는 선나무, 누운 나무.

지에 있으니 한국전쟁의 화(禍)도 비껴갔을 테다. 그래서 마을 이름이 피화기(避禍基)다. 실제로 이곳에 살던 화전민은 전쟁이 난지도 몰랐다 하고, 1·4 후퇴 당시 피난민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마을에서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하지만 도리어 그 점이 매력적이다. 도시생활에 찌든 사람이 느긋하게 쉬면서 안식을 누리기에 좋다. 마을 구경도 재미있다. 화전민이 생활하던 너와집, 신령스러운 엄나무가 지키는 서낭당도 남아 있다. 소백산은 안 보여도 북쪽 태화산 방향 산세가 근사하다. 마을에서 숙소를 운영하는 김은경(55)씨는 “약 5년 전 여행 왔다가 반해서 정착했다”며 “겨울에 눈이 오면 완벽하게 고립되는데 이런 곳이 국내에 드물지 않나”고 말했다.

보발1리는 2016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북도가 주관한 공모전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았다. 단지 천혜의 자연 속에 마을이 들어앉아서가 아니다. 주민이 힘을 합쳐 경관을 가꾸고, 사진·풍물 등 동아리 활동도 하며 마을에 활기가 돌도록 했기 때문이다. 박남진 이장은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위축됐지만 지금도 서로 농사일은 많이 돕는다”며 “최근 귀농·귀촌인이 부쩍 늘었는데 원주민과 잘 어울려 지낸다”고 말했다.

단양=최승표 기자 spchoi@joongang.co.kr



보발1리 피화기마을에는 너와집이 몇 채 있다. 과거 화전민이 살던 흔적이다. 보발1리 주민들은 2016년부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풍물 동아리. [사진 보발1리]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대학만 가면
취업만 하면
승진만 하면

눈 앞의 목표를 위해
진짜 원하는 것은
미루며 살고 있지 않나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꿈꿔왔던 삶을
시작해보세요

나 자신을 찾는 것
내 자산이 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산을 알라

NH자산⁺



나를 발견하는 자산관리 NH자산⁺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에서 만나세요



나도 모르게 흩어져 있는
내 자산과 소비패턴을 한눈에



MY목표를 세운 후
도전하고 성취하는 재미



나만을 위한 MY보고서로
나를 발견하는 즐거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서비스 약관을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1-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 2021-2991(2021.06.15~2023.06.15) ※서비스 관리 부서 : NH농협은행 개인종합 자산관리 Cell

NH농협은행

관광 헬기 10대 띄운 영덕 강촌마을 “히트 상품 됐어요”

행복농촌 ③ 영덕 고래산마을

국내에서 헬기 투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경북 영덕의 시골 마을에서 헬기 투어가 가능할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영덕’ 하면 보통 대게와 바다가 떠오르는데, 영덕에는 ‘고래산마을’처럼 남다른 놀 거리를 품은 농촌도 있다. 들녘 한복판에 캠핑장, 키즈카페, 범퍼카 등을 두고 손님을 맞는다. 가장 놀라운 건 역시 헬기 투어다. 마을에서 한나절 놀며 경운기나 트랙터보다 헬기를 더 많이 목격했다. 낯선 시골에서 인생의 버킷리스트 하나를 이뤘다.

2년 전 폐교 헬고 헬기장 만들어

7번 국도는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해 해안을 따라 쪽 내려오다 영덕에 이르러 내륙으로 파고든다. 영해면 읍내를 빠져나와 들판을 달리다 보면 느긋한 전원 풍경이 나타난다. 축산면 상원리 고래산마을이다. 고래산(291m) 자락에 80여 가구가 듽성듬성 모여 촌락을 이룬다. 편의점이나 약국·학교는커녕 식당 하나 없는 강촌이지만, 근래 전국에서 가장 신나는 농촌으로 났다.

마을 한복판의 축산초등학교는 10년 전 문을 닫았다. 2019년 쓰러져가는 폐교를 헬고, 지금의 다목적회관과 키즈카페를 지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매끈한 헬기장이다. 5인승부터 14인승까지 헬기 종류가 다양하다. 국내 유일의 헬기 투어 상품을 운영하는 ‘더 스카이’의 기지가 바로 이곳이다. 항공사엔 동해안을 코앞에 둔 입지가, 마을에선 히트 관광 상품이 절실했었다. 그렇게 2019년 6월 헬기 10대가 마을에 등지를 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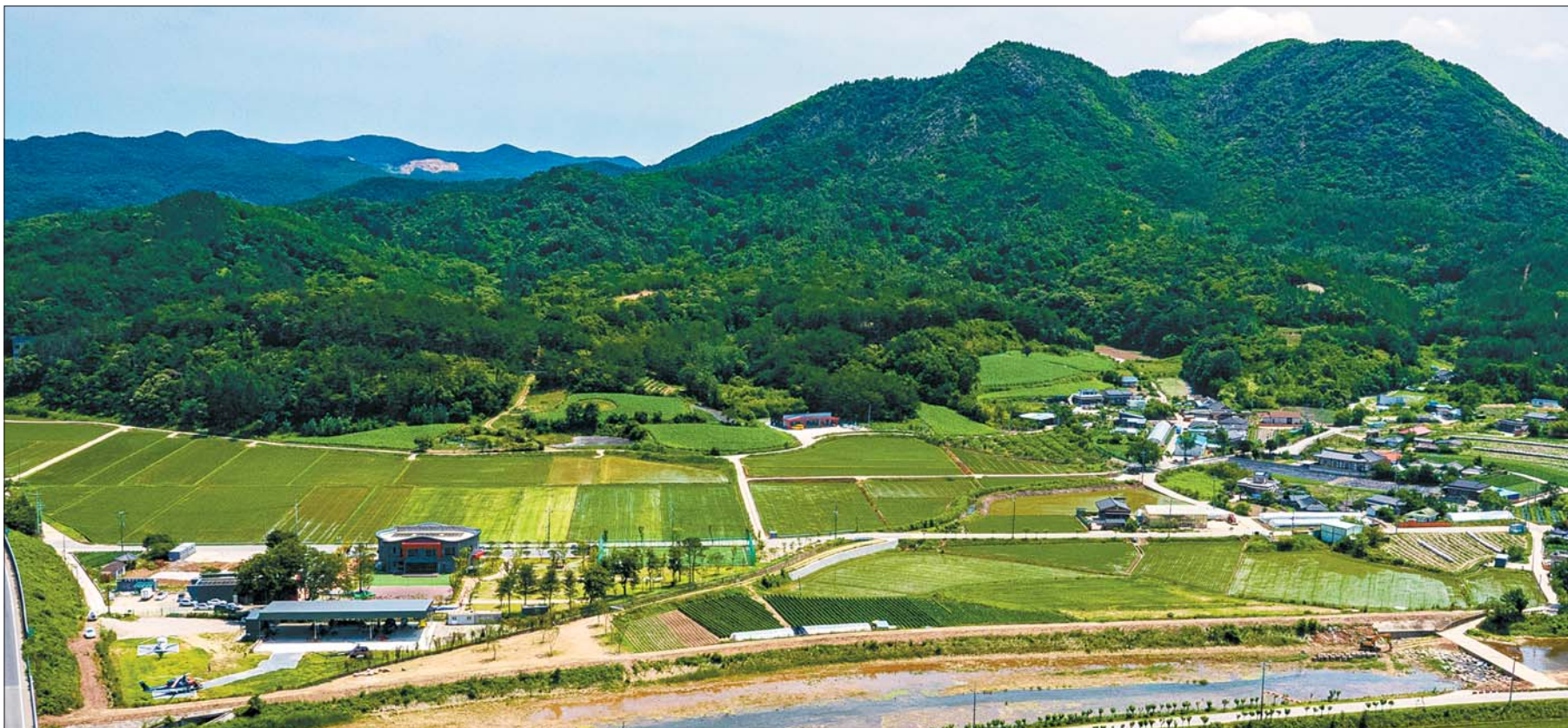
관광 헬기는 10여 분간 마을 상공을 누빈다. 600m 상공에서 고래산 정수리를 내려다보고, 축산항으로 나갔다가 동해안을 날아 마을로 돌아온다. BTS가 2015년 ‘화양연화’ 프롤로그 영상을 찍었던 경정항 해안도 지난다. 1명당 10만원(4인 이상)을 받는다. 헬기에서 본 풍경은 이교찬(80) 어르신과의 회상으로 대신한다.

“눈물이 날 뻔 했쎄요. 60년 넘게 고래산을 오르내렸는데도 몰랐으니. 우리 마을이 정말 그림 같더라고.”

아이 없는 시골에 키즈카페

2019년 약 8000명, 2020년 약 1만5000명. 관광 농촌으로 거듭난 뒤 고래산마을에는 관광객이 부쩍 늘었다. 마을 최고의 인기 상품은 의외로 키즈카페다. 트램펄린과 정글짐, 볼 풀장 등을 갖춘 일반적인 실내 놀이터지만 영덕에선 전례가 없었다. 키즈카페의 앞마당은 물놀이장이자, 범퍼카 체험장이다.

“분교 하나 없는 시골에 키즈카페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다들 말렸지만, 근사



헬기에서 내려다본 경북 영덕 고래산마을. 평범한 시골 같지만, 국내 유일의 헬기 투어 상품을 운영하는 별난 농촌이다. 들녘 한복판에 캠핑장, 키즈카페, 범퍼카 따위를 두고 손님을 맞는다.



영덕과 동해안 일대를 누빌 수 있는 관광 헬기 10대(5~14인승)가 고래산마을 안에 있다.

한 놀이터가 생기니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기 시작했다”고 전병길(51) 고래산마을 위원장은 설명했다. 덕분에 지역 젊은 귀농인도 늘었다.

고래산마을을 즐기는 팁 하나.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이 남는 장사다. 다목적회관에 고래산과 들녘을 바라다보는 객실(7만원부터)이 7개 있는데 11월까지 방값을 50% 깎아준다. 이미 8월까지 손님이 꽉 찼다. 나른 야영장(3만원)도 있다. 하룻밤 묵어가는 손님에게는 잔디가 깔린 마을 축구장(2시간 5만원)을 공짜로 빌려준다. 마을 곳곳이 생생한 놀이터고, 고래산 정상은 40분이면 오를 수 있다. 산 아래에는 ‘은혜당’이라는 ‘ㄷ’ 자형 한옥이 있다. 100년 고택을 고쳐 손님을 받는 찻집이자 민박집이다.

마을 주민이 다목적회관 1층에서 날마다 점심상(7000원)을 차린다. 주변 농민을 위한 음식이라, 점심만 운영한다. 농민 틈에 앉아 고등어조림, 된장국, 야채전 등이 담긴 시골밥상을 맛봤다. “소박한 시골밥상인데, 어찌 요샌 관광객이 더 좋아한다”고 말하는 김호숙(66) 부녀회장의 얼굴에서 푸근한 미소가 번졌다.

영덕=글·사진 백종현 기자
baek.jonghyun@joongang.co.kr



1 쓰러져가는 폐교를 헬고, 2019년 키즈카페를 조성했다. 2 마을엔 식당이 없다. 대신 주민들이 다목적회관 1층에서 날마다 농민과 관광객을 위해 점심상을 차린다. [사진 고래산 마을]



속편하게 양배추 밀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의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브로콜리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특별
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00-1101



2021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농촌 ”

2021.9.2 (목) 09:0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매년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를 통해 주민 스스로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9월 2일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행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 유튜브에서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를 검색하시거나 상단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2014년에 시작한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가 올해로 8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금상 수상마을을 확인하고 2021년 새로운 행복농촌을 기대해주세요!



2021년에도 계속됩니다! 마을만들기

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환경
2016 경남 합천 양덕메마을	2016 충남 태안 만대마을	2016 경북 하동 매계마을
2017 전북 임실 치즈마을	2017 경북 상주 정양리마을	2017 경남 밀양 봉대마을
2018 충남 홍성 거북이마을	2018 경남 밀양 백산마을	2018 강원 홍천 열목어마을
2019 경남 거창 빙기실마을	2019 경북 예천 풍정마을	2019 경북 군위 화산마을
2020 경남 사천시 우천바리안마을	2020 충남 보령시 성주4리마을	2020 충남 보은군 구병마을

변화한 농촌을 뽐내세요! 농촌만들기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농촌빈집·유휴시설활용 우수사례
2020 충북 제천 백운면	2020 경기 평택 웃다리문화촌
2012~2016년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진행 - 풍성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주민 화합과 삶의 질 향상	- 지역주민 협력 프로젝트로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재생 - 농악동호회 중심의 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본선이 다음 달 9일 개최된다. 지난 18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사전설명회.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행복하고 활력 넘쳐나는 농촌 만들기 25개 팀 본선행…다음 달 9일 최종 경합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올해로 8회를 맞은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의 본선이 다음 달 9일 대전시 서구 KT대전인재개발원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분산 개최된다.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과 지자체 스스로가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해 주민 화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 중앙일보가 후원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소득·체험 ▶문화·문지 ▶경관·환경 등 마을만들기 3개 분야와 ▶농촌지역 개발사업 우수사례 ▶농촌빈집·유휴시설활용 우수사례 등 농촌만들기 2개 분야의 총 5개 분야로 진행한다.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는 매년 전국 농촌 마을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황을 이뤘다. 올해도 1994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지난 6월 30일까지 도별 콘테스트를 통해 41개 팀을 선정했다. 이어 이들 41개 팀을 대상으로 지난 4·5일 이틀간 현장평가를 온라인으로 실시했고, 여기에서 선정된 마을만들기 15개 팀과 농촌만들기 10개 팀이 다음 달 9일에 최종 경합에 나서게 된다. 지난 18일엔 본선 진출 25개 팀을 대상으로 운영규정 및 행사계획을 안내하고 발표 순서를 추첨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다음 달 9일에 개최되는 콘테스트 본선에선 25개 팀 중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우수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금상 5개 팀에는 정부시상(대통령상 1개, 국무총리상 3개, 장관상 1개)과 시상금(마을만들기 금상 각 3000만원, 농촌만들기 금상 각 1000만원)을 수여한다. 참여한 모든 마을에도 순위에 따라 상장과 300만~2000만원의 시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콘테스트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참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지침에 따라 장소를 분리해 실시하고, 마을주민 퍼포먼스는 실시하지 않고 우수사례만 발표하며, 발표 상환을 실시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만들기 분야의 경우 수상 후보 15개 마을의 홍보영상을 사전에 공개하고, 관심 마을에 문자 투표하는 대국민 참여 투표를 27일부터 열흘간 진행해 그 결과를 본선 콘테스트에 가점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대국민 참여 투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6일 이후 콘테스트 홈페이지(www.raise.go.kr/contest)에 공지한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중앙일보·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김지동 퓨처그린 대표가 태양광과 흡사한 빛을 제공하는 식물 성장용 LED 조명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퓨처그린]

실내서도 기후·환경 상관없이 식물 재배 LED 조명 활용한 수직형 농장 보급 앞장

FTA시대, 앞서가는 농업 현장 ⑤ 김지동 퓨처그린 대표

퓨처그린의 김지동 대표는 식물이 가진 치유의 힘을 믿는다. 그가 식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일본에서 식물공장을 만나면서다. 푸른 식물들이 LED 조명 아래 웅기종기 모여서 자라는 풍경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한국으로 옮겨오고 싶다는 바람이 싹트고, 2011년 퓨처그린 설립과 함께 LED 조명을 활용한 수직형 농장 보급을 시작했다.

수직형 농장은 토양·수분·햇빛을 인공적으로 설치해 식물이 뿌리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설계한 시설을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시스템이다. 재래식 농업과 비교해 물은 10%만 사용하면 되고 농약·제조제 등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도심 속 실내 공간에서도 기후와 환경에 상관없이 일정한 품질의 식물을 재배할 수 있어서 미래형 농업으로 주목받는다.

퓨처그린은 주로 대형 수직형 농장을 설계해 지어주고 재배 기술까지 컨설팅해 주는 스마트팜 플랫폼솔루션 사업에 주력해 왔다. 태양광과 유사한 식물 육성용 LED 기술을 무기로 일본 수출을 이뤄냈고, 몽골·캐나다·미국 등지로 수출지역을 넓혀가고 있다.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미국·일본의 특허 등록되었다. 국내 스마트 육묘 시스템을 위한 LED 보급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고, UAE지역 컨테이너 딸기 스마트팜 수출 성과를 거뒀다.

수직형 농장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개인용

LED 조명을 제작해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식물성장용 LED 조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온라인 물을 개편하고, 상품 상세 페이지에 원리와 효과, 실제 가정 및 카페에서의 활용 모습을 한눈에 보기 좋게 담아냈다.

신상품 조명 ‘쑥쑥이’와 ‘튼튼이’ 론칭에 맞춰 온라인 광고를 노출하고, 사용 후기 이벤트 및 블로그 활용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한 달에 1000명이 되지 않던 온라인 물방문자 수가 약 1만 명으로 급증했고, 온라인 매출이 93% 상승했다.

김 대표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전세계 어디서나 한국의 고품질 딸기를 계절에 상관없이 맛볼 수 있는 차세대 식물공장을 연구개발 진행 중이다. (공동연구: 서울대학교)

김지동 대표는 “Grow Green Indoors라는 슬로건 아래, 상추 등 엽채류 수직형 농장 보급에 국한되지 않고 기술농업과 도심 농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소비자분으로도 다양한 작물의 재배는 물론 상품화와 판매까지 가능한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중앙일보·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올 여름 에너지 절친이 되어주세요

에너지 절약친구

"적정온도 26°C를 지키는 저탄소 생활 실천이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26°C

"적정 실내온도 26°C 설정"

"에어컨 사용 전 필터 청소"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1등급 사용"

"에어컨 사용시 2시간마다 창문열기"

OFF

“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농촌~! ”

해 보 노 촌 만들기 콘테스트

2021. 9. 9 (목)

마을만들기 | KT대전인재개발원

농촌만들기 | 대전컨벤션센터



2021년 제8회

주민과 지자체 스스로가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하여 주민화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입니다.

2021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는 대국민 참여를 위해 마을분야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가 콘테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8.27 ~ 9.5 (10일간, 18:00까지) 진행됩니다. 참가팀을 향한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콘테스트 참가팀을
확인해주세요
(마을분야만 해당)



응원하고 싶은
참가팀의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전송 번호

1800-4823

참여자 문자투표 비용 무료

※ 추첨을 통해 100분께 상품권(1만원 상당) 증정

예시 0, 0번 또는 0번 00마을

※ 중복투표불가 (1개의 휴대폰번호로 1개 마을만 응원 가능)

※ 무효표처리주의 (마을명만 보내거나 마을명이 틀린 경우, 번호와 마을명을 다르게 조합하여 보낸 경우 등)

콘테스트 참가팀

참 가 팀 | 5개 분야, 25개 팀

홈페이지 | www.raise.go.kr/contest

문 의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042-610-1933~5)



핸드폰에서
확인해보기

찰 각

마을만들기			농촌만들기	
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환경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농촌빈집유희시설활용 우수사례
1번 전북 정읍시 정문 두승산콩마을	6번 경기 양평군 세월리 달강마을	11번 강원 평창군 청옥산 깨비마을	충북 옥천군 동이면	강원 정선군 마을호텔 18번가
2번 전남 해남군 연호마을	7번 경북 칠곡군 학상리마을	12번 충북 제천시 상천마을	충남 아산시 송악면	충북 진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3번 충남 서천군 동자북마을	8번 충북 진천군 통산마을	13번 충남 보령시 호동골과 첫떼기마을	전북 고창군 흥덕면	전남 화순군 이서커뮤니티센터
4번 경기 연천군 푸르네마을	9번 충남 부여군 송정그림책마을	14번 전북 남원시 산촌마을	전남 함평군 월야면	경북 영주시 영주소백산예술촌
5번 충북 영동군 모리마을	10번 제주 제주시 함덕리마을	15번 경북 구미시 초곡리마을	경북 성주군 벽진면	경남 함창군 마을지기목공소

온라인 컨퍼런스·언팩쇼·판매기획전... 140만 명 방문해 뜨거운 관심 확인

2021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2021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이하 박람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주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 주관으로 지난 8~11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렸다.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박람회는 온라인을 통해 14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농업 분야 대표 박람회로 자리 잡았으며, 농업·농촌의 가치와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올해도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 도시농업박람회, 농업기술박람회, 농식품 과학기술대전, 말산업박람회, 귀농귀촌박람회 등 농식품 관련 박람회들과 통합·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이번 박람회는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등을 통해 컨퍼런스, 언팩쇼, 판매기획전, 온라인 체험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다. 농업의 혁신성과 지속가능성, 산업적 확장성에 대한 전망을 관통하는 콘텐츠에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디지털 농업으로 대전환’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1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의 미래기술 특별세션(혁신 스마트팜) ‘어디서나 만나는 농업’ 장면.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미래기술 특별세션(혁신 스마트팜, 데이터 농업)과 그린뉴딜 컨퍼런스, 농촌재생 컨퍼런스 등 4개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가해 농업의 새로운 미래 가치에 대한 공감과 비전을 나누는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그린뉴딜 컨퍼런스를 통해서서는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 등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 전망과 미래를 논의했으며, 농촌재생 컨퍼런스

에서는 포용적인 공동체 삶의 터전으로서의 농촌의 가능성과 발전 전망을 고민하는 장이 마련됐다.

국민이 평소 접해보지 못했거나 농업·농촌 분야에 새롭게 접목해볼 수 있는 혁신 기술 10개를 공개한 언팩쇼, 국민과 농업인의 생활을 변화시킨 혁신기술 50여 개를 소개하는 혁신기술 영상기획전 등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마련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와 함께하는 추석맞이 판매기획전’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 6차산업상품, 가공식품, 과일, 채소·양곡, 축산 등 5개 카테고리의 120개가 넘는 제품이 참가한 농협을 판매기획전과 농협 라이브리를 통해 2억원이 넘는 판매액을 기록했다.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도 농산물·농식품의 판매를 지원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박람회 한정상품인 국산 조생종 품종으로 구성된 2021년 햅쌀 3종 세트는 준비된 수량 2000개가 모두 판매되며 2700만원이 넘는 판매금액을 기록했다. 또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농장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라이브커머스뿐 아니라 사회적 농업을 소개하는 콘텐츠, 농장에서 자란 농산물을 재료로 한 쿠킹쇼도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지만 다채로운 소통·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김승수 중앙일보M&P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한국농어촌공사가 기후재난 예방 사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예당저수지 치수능력확대사업 현장. [사진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고도화 통해 용수 공급 효율성, 홍수대응능력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매년 발간되는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선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 10년간 이상기후 현상이 매년 발생했다. 폭염 및 열대야는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2015~2017년엔 강수량 부족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 2019년엔 역대 최다인 7개 태풍이 왔고, 지난해엔 역대 최장인 54일간의 장마가 이어졌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 분야의 기후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현재의 피해 현황만 아닌, 기온·강수·증발산량 등 기상여건 변화, 작물의 용수 수요 변화, 기존시설의 용수공급·홍수 배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약지역을 발굴하고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중 가뭄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단순히 저수지·양수장만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물 공급 시 여유 수량을 상호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연계해 농업용수 공급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또한 농어촌용수 개발의 근간이 되는 국가 법정계획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을 올해부터 재수립하고 있다. 전국을 511개의 용수구역으로 구분해 농업용수 수요·공급 과부족 산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서지역에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할 계획이다. 홍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엔

홍수 규모, 홍수도달 시간, 하류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한 수문학적 안정성 분석을 통해 홍수 영향이 큰 저수지는 치수능력확대사업을 추진하고, 홍수 영향이 작은 저수지는 사전방류 수문을 설치하는 등 저수지의 맞춤형 홍수대응능력 강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현재 ‘농업용 저수지의 홍수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사 관리 저수지 3400개소 중 홍수 발생 시 하류부에 인명·재산 등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치수능력 분석을 통해 시급 대상지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홍수는 가뭄과 달리 단시간 내에 발생함에 따라 홍수 발생 시 적정 방류량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상관측, 수위·유량 계측 등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홍수예측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고도화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재배여건 변화, 통합 물관리 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인식 사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정비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만큼 농업 분야에서 중요한 과제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이 안정적인 식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올해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전북 정읍시 정문 두승산콩마을이 차지했다. [사진 농식품부]

5개 분야에 1994개 마을 참여해 각축 정읍시 정문 두승산콩마을 대통령상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전국 1994개 마을이 참여한 올해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전북 정읍시 정문 두승산콩마을이 차지했다.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지난 2014년부터 주민과 지자체 스스로가 역량을 발휘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행사로 올해 8회째를 맞았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는 5개 분야(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환경, 농촌 지역개발사업우수, 농촌빈집·유흥시설활용우수)에 107개 시군에서 1994개 마을(읍면·시설)이 신청했다. 본선에는 25개 마을(읍면·시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최종심사 결과 25개 마을(읍면·시설)이 수상했다. 특히 마을 만들기 분야는 2만9725명을 대상으로 문자 투표를 실시해 투표 결과에 따라 마을별 가점(0.5~2.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분야별 금상·은상·동상·입선한 마을의 경우에도 국무총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한국농어촌공사사장상(시상금 3000만원~300만원)을 받았다.

소득·체험 분야에서 금상(대통령상)은 전북 정읍시 ‘정문 두승산콩마을’이 수상했다. 계절별 식당메뉴 개발(콩국수·순두부 등), 콩 가공식품(두

부·콩물·두부과자 등) 판매로 연 4억7000만원의 매출 달성과 마을주민 2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수익의 일부는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해 주민 단합행사에 환원하고 있다.

문화·복지 분야에서 금상(국무총리상)은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마을’이 선정됐다. ‘학춤’ 개발, 학수고대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학상리만의 무형문화인 ‘사람책도서관’을 완성해가고 있다.

경관·환경 분야에서 금상(국무총리상)은 충남 보령시 천북면 ‘호동골과 젓떼기마을’이 차지했다. 마을힐링공원·마을정원 조성, 어울림공간 조성, 농·어촌 쓰레기 수거의 날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분야에서 금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전남 함평군 ‘월야면’은 달맞이문화센터에 문화공간을 만들어 사물놀이, 한지 공예,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농촌빈집·유흥시설활용 우수사례 분야에서 금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은 전남 화순군 이서면 ‘이서커뮤니센터’는 폐교된 이서보교를 리모델링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촌에서 성공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 전국의 마을과 지자체가 계속해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덕순 중앙일보M&P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한 모든
마을 및 지자체
축하합니다!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농촌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역량을 발휘하여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기 위한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9.9)하여 최종 25개 마을·읍면·시설이 선정되었습니다.

마을 만들기 분야

소득·체험



금상

'작은 마을이 쏠아 올린 롱 하나의 기억'
전북 정읍시 정문 두승산공마을



-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의식변화
- 마을 소득시설사업 조성으로 마을 문제점 해결
- 투명한 회계처리와 주민참여 결정 시스템 운영

은상

언제든 서로 포용할 수 있는 힐링의 경기 연천군 푸르네마을

동상

주민 모두 주인이 되어 행복을 빛는 충남 서천군 동자북마을

입선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풍요로운 충북 영동군 모리마을
오순도순 한번 만나가는 실기 좋은 전남 해남군 연호마을

문화·복지



금상

'당신이 오기를 학습고대하는'
경북 칠곡군 학상리마을



- 마을주민들이 함께 만든 축제, 학습고대 축제
- 다양한 인문학적 활동을 통해 발굴된 주민들의 삶, 사람책도서관
- 주민들의 숨겨진 재능과 가치 발견, 마을 동아리

은상

달인들이 살아가는 경기 양평군 세월리 달강마을

동상

이야기가 있는 한 마을은 이어진다 충남 부여군 송정그림책마을

입선

행복 마을, 같이하는 가치 있는 제주 제주시 함덕리마을
행복두드림 문화로 통(통)하는 신통방통 충북 진천군 통산마을

경관·환경



금상

'자연과 사람이 살아 숨쉬는'
충남 보령시 호동굴과 젓떼기마을



- 믿는 마음 '스스로 신뢰하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된다'
- 함께 꾸는 꿈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한 '리스타트'
- 마을을 열고 웃음을 만드는 마을 만들기

은상

산과 물, 사람이 어우러져 행복을 가꾸는 충북 제천시 상천마을

동상

소나무와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북 구미시 초곡리마을

입선

자연과 사람, 별빛이 머물다 가는 강원 평창군 청옥산 깨비마을
후손에게 지금의 환경 그대로 전북 남원시 산촌마을

농촌 만들기 분야

농촌 빈집·유허시설활용 우수사례



금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전남 화순군 이서커뮤니티센터



-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치를 실현하는 시설운영
- 주민 화합 및 경제 활성화 공간으로 활용
- 미래세대 유입을 위한 시설활용

은상 함천 경남 함천군 마을지기목공소

동상 고한 야생화마을 강원도 정선군 마을호텔18번가

입선 진천군 충남 진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입선 행복을 선사하는 경북 영주시 영주소백산예술촌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금상

'달빛가득 문화가 흐르는'
전남 함평군 월야면



- 자체적인 문화동아리 및 무료 경로식당 운영
- 음악회, 재능나눔 바자회, 풍년기원제 등 공동체 행사 확대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타 부처 공모사업 등 연계 추진

은상 희망을 심어가는 문화복지 공동체 경북 성주군 벽진면

동상 365일 '흥(興)'나는 지역 공동체 전북 고창군 흥덕면

입선 아이에서 어른신까지 모두 함께 행복한 충남 아산시 송악면

입선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에코힐링 중심지 충북 옥천군 동이면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는 107개 시·군의 1994개 팀 중에서 각도 예선과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된 25개 팀이 참여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참석 인원을 제한한 만큼 유튜브 채널로 스트리밍을 진행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마을 성과 사례가 다른 지역 발전의 불쏘시개 되기를”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는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농촌’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 스스로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평가·공유함으로써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농촌을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취지가 있으며, 지난 2014년에 시작해 올해로 8회를 맞이했다.

콘테스트는 총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소득·체험 ▶문화·복지 ▶경관·환경 등 마을만들기 3개 분야와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농촌빈집·유흥시설활용 우수사례 등 농촌만들기 2개 분야이다.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는 지난달 9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대전에서 열렸다.

107개 시·군에서 1994개 팀 참여

올해 콘테스트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방역 기준에 맞춰 행사장을 2곳으로 분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3단계)을 준수해 참석 인원을 49명 이내로 제한해 진행했다. 아울러 참석 인원이 제한된 만큼 참관을 원하는 주민 및 지자체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 채널(채널명: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을 통해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을 진행했으며, 현재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성료

‘두승산콩마을’ 등 5개 마을 금상
콩 가공식품, 마을힐링공원 조성 등
우수 사례 공유의 장으로 자리매김

발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올해는 107개 시·군에서 1994개 팀이 참여했으며, 이중 각도 예선과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된 25개 팀이 지난달 9일 열린 콘테스트에 진출했다. 수상 팀은 전문가 심사단 15명이 분야별 심사를 진행해 선정했다.

또 이번 콘테스트에서는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을 홍보 동영상상을 유튜브에 사전 공개하는 한편 대국민 문자투표(8월 27일~9월 5일, 2만9725명 참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가점으로 적용했다.

콘테스트 결과 ▶전북 정읍시 정문두승산콩마을이 소득·체험 분야 금상(대통령표창) ▶경북 칠곡군 학상리마을이 문화·복지 분야 금상(국무총리표창) ▶충남 보령시 호동골과 젓떼기마을이 경관·환경 분야 금상(국무총리표창) ▶전남 함평군 월야면이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금상(국무총리표창) ▶전남 화순군 이서커뮤니티센터가 농촌빈집·유흥시설활용 우수사례 금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소득·체험 분야에서 금상을 받은 전북 정읍시 정문두승산콩마을은 계절별 식당 메뉴 개발(콩국수·순두부 등), 콩 가공식품(두부·콩물·두부과자 등) 판매로 연 4억7000만원의 매출을 달성

하고 마을 주민 2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수익의 일부는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해 주민 단합행사 등에 환원하고 있다.

문화·복지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마을은 인문학 활동을 통해 학상리만의 학촌을 개발하고, 학수고대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 시행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학상리만의 무형문화인 ‘사람책 도서관’을 완성해가고 있다.

경관·환경 분야에서 금상을 받은 충남 보령시 천북면 호동골과 젓떼기마을은 마을힐링공원과 마을정원 조성, 어울림공간 조성, 농·어촌 쓰레기 수거의 날 운영, 마을 환경 보전 인식 개선 활동(업사이클링 밴드 운영, 캠페인송 및 영상 제작, 마을표어 공모전 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전남 함평군 월야면은 달맞이문화센터에 문화공간을 만들어 사물놀이·한지공예·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목욕탕과 재능나눔 바자회를 통해 자체 운영관리비를 확보해 무료 경로식당 운영,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에 활용하고 있다.

콘테스트 수상 마을 사례집 배포

농촌빈집·유흥시설활용 우수사례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전남 화순군 이서

면 이서커뮤니티센터는 폐교된 이서분교를 리모델링해 경로잔치·송년회·음악회 등 주민 화합 행사, 방문객 쉽터, 농촌 유학, 청년마을프로젝트, 전담에서 한 달 살기, 직거래 장터(난리법석장)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최수명 심사위원장(전남대 교수)은 “마을 주민과 전문가,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상생적 거버넌스 구축이 지역사회 발전의 열쇠임을 보여줬다”면서, “특히, 올해는 농촌을 견인하는 여성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마을의 성과 사례가 다른 지역과 마을의 발전을 가져올 불쏘시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을 주민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콘테스트를 준비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행복농촌 만들기 성공한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 전국의 농촌마을 주민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행복농촌을 만들어 가는 과정과 노력, 성공 비법 등을 담은 콘테스트 수상 마을 사례집을 배포해 다양한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며 지속해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승수 중앙일보M&P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각 분야의 금상을 수상한 전북 정읍 정문두승산콩마을, 경북 칠곡 학상리마을, 충남 보령 호동골과 젓떼기마을, 전남 화순 이서커뮤니티센터, 전남 함평군 월야면(왼쪽부터)의 성공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두산산품마을은 주민 모두의 하나 된 노력, 작은 규모의 마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과 집중,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전통 방식으로 콩가공 식품과 계절별 특색 메뉴 개발

소득·체질 분야 금상 - 전통 정읍시 정문 두산산품마을

두산산품마을은 전라북도 정읍시에 위치한 38가구, 주민 수 66명의 작은 마을이다. 농지가 적고 땅이 척박해 ‘늑두발 윗마리’라고 불릴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마을이었다. 이렇게 척박했던 마을이 풍한 가지로 기적을 이루기까지는 주민 모두의 하나 된 노력이 있었다. 주민들은 마을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원을 만들고 좀 더 잘 사는 마을로 성장하기 위해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공동체 발굴 및 육성 사업인 ‘시민창안대회’의 뿌리 단계에 참여했다.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마을 사업도 시작했다. 먼저 마을은 약 3636㎡(1100평)에 공동으로 콩 재배를 시작하고, 정부의 소득지원 사업을 유지해 마을 식당과 가공시설 체험센터를 조성했다. 마을 사업 초기에는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마을 주민 간의 이견

조율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주민 모두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고, 투명한 회계 처리 및 중요 안전에 대한 주민 참여 의사 결정 시스템을 마련·운영하며 지난 10여 년간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경험에 많은 고령층 마을 주민들을 고용해 전통 방식의 두부와 청국장을 제조하고 전통 음식의 손맛을 살릴 수 있는 레시피를 개발하는 한편 젊은 세대에게 전통 음식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했다. 두부·콩물·두부과자·청국장 등 콩가공 식품 개발과 계절별 특색 있는 식당 메뉴 개발로 매출도 점차 증가했다. 이렇게 시작한 사업으로 음식 체험 및 가공상품 판매가 본격화된 2015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2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최근 3년간의 연 매출이 평균 4억8000만원에

이르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마을 사업은 마을 주민 30%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의 안정적인 소득원이 됐다. 잘 살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수익금 환원 등 지역 상생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6년까지 마을 발전 기금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주민 단합행사 개최, 지역 장학금 지급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며 행복한 농촌으로 거듭나고 있다. 두산산품마을은 풍한 가지로 꿈을 실현하며 작은 규모의 마을이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작지만 강한 마을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김승수 중앙일보M&P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학상리마을에서는 매년 가을이면 주민의 주도적자발적 참여로 떠나간 학과 사람들이 되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고구 행사가 열린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통해 지속적인 소통의 장 마련

문화·복지 분야 금상 - 경북 칠곡군 학상리마을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에는 유학산 아래 학수고대 마을이 있다. 예로부터 학들이 많이 찾아와 ‘학이 머무는 자리’라는 뜻으로 학상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마을 이름처럼 자연과 사람이 한가롭게 어울려 살아가던 마을이다. 하지만 난개발로 학이 떠나고 주민들이 도시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학상리마을에 위기가 닥쳤다. 마을은 이전의 활기를 잃고 급속하게 고령화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전체에 빠진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떠나간 학과 사람들의 반자리를 채우고 새로운 터전을 만드는 일이 시급했다.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와 복지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지난 2012년 칠곡 인문학 마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인문학 경험에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며 마을 변화를 완성한 경

험이 예술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올리고 문화예술 활동의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과정에서 배움과 소통의 공동체가 생겨났고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 것은 ‘주민 스스로’라는 자신감도 생겼다. 매년 가을에 펼쳐지는 학수고대 축제는 떠나간 학과 사람들이 다시 되돌아오기를 기원하는 학상리 마을만의 고유 행사로 기화부터 준비와 진행 등 모든 과정이 주민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흰 도포를 입고 황금 들판에서 ‘학춤’을 추며 학이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파포몬스를 펼친다. 학상리만의 독특한 무형문화인 ‘사람책 도서관’은 각기 다른 주민들의 삶을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듣는 이와 들려주는 이 모두에게 삶의 특별한 의미와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양성된 마을의 주민 강사들은 직접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마을의 숨겨진 재능과 가치를 공유하고, 나아가 마을의 문화와 역사를 만들고 있다. 마을에는 학수고대 복합문화공간, 교육관, 청년 회소 등 다양한 문화 복지 공간이 조성돼 있으며, 농악·다례·재봉틀 등 주민 주도 동아리 활동과 인문학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아울러 학상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농촌 문화와 전통을 배울 수 있는 학상리만의 특별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마을을 만들겠다는 주민들의 마음이 오늘날의 학상리 마을을 만들고, 문화예술 활동이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다.

김승수 중앙일보M&P 기자

제8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결과				
구분	금상(5)	은상(5)	동상(5)	입선(10)
마을 만들기 (15)	소득·체질(5) 정읍 정문 두산산품마을 (대통령표창·3000만원)	연천 푸르내마을 (장관표창·2000만원)	서천 동자북마을 (장관표창·1500만원)	영동 모리마을 해남 연호마을 (농어촌공사사장상·500만원)
	문화·복지(5) 칠곡 학상리마을 (국무총리표창·3000만원)	양평 세월리 달감마을 (장관표창·2000만원)	부여 송정그림책마을 (장관표창·1500만원)	제주 함덕리마을 진천 통산마을 (농어촌공사사장상·500만원)
	경관·환경(5) 보령 호동굴과 젓떼기마을 (국무총리표창·3000만원)	제천 상천마을 (장관표창·2000만원)	구미 초곡리마을 (장관표창·1500만원)	평창 청옥산재마을 남원 산촌마을 (농어촌공사사장상·500만원)
농촌 만들기 (10)	농촌지역 개발사업우수(5) 함평군 월야면 (국무총리표창·1000만원)	육천군 동이면 (장관표창·700만원)	아산시 송악면 (장관표창·500만원)	고창군 흥덕면 상주군 벽진면 (장관표창·300만원)
	농촌빈집·유류시설 활용우수(5) 화순군 이서면 이서커뮤니티센터(장관표창·1000만원)	합천군 합천읍 마을지기목공소 (장관표창·700만원)	정선군 고한읍 마을호텔18번가 (장관표창·500만원)	영주시 북석면 영주소백산예술촌 진천군 진천읍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장관표창·300만원)

(*)안은 마을 수



충남 보령시 호동굴과 젓떼기 마을은 힐링 공원 및 마을정원 조성 등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 복원에 노력하며 행복 농촌의 표본을 만들고 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소하천 정비, 힐링공원 조성...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집중

경관·환경 분야 금상 - 충남 보령시 호동굴과 젓떼기마을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학성2리 젓떼기마을은 자연과 사람이 살아 숨 쉬는 마을이다. 하지만 젓떼기마을은 농촌과 어촌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과 주민이 버린 쓰레기로 심각한 오염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주민들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2017년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고, 마을 경관 복원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농촌현장 포럼 등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이 함께 마을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한편 마을의 자원을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깨끗한 마을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소

하천 정비 사업, 꽃과 나무 식재, 마을 대청소의 날을 운영했다. 마을 힐링공원 및 마을정원 조성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 복원에 공을 들였다. 또한 농·어촌 쓰레기 수거의 날 지정하고 쓰레기 업사이클링 활동과 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면서 마을 경관과 환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깨끗한 마을 만들기는 외적인 변화뿐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끌어냈다. 주민들이 조성한 마을 정원은 쉼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됐다. 작은 일에서 생기는 마을 주민 간 갈등이 나눔 정원에서 만남을 통해 화합·소통으로 이어졌다. 또 출향민과 주민의 화합 도모를 위한 ‘우리 마을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고 마을의 비전을 함께 나눴다. 마을 만들기는 모든 주민의 삶에 스며들었고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

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마을이 됐다. 그 밖에도 농기계 임대 사업, 온라인 카페 운영을 통한 투명한 마을 운영, 업사이클링 동아리, 주민 한마음 축제 등을 통해 귀농·귀촌·귀여인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신뢰를 쌓을 수 있게 됐다. 마을 만들기를 통한 주민의 긍정적 인 변화는 마을 안에서 화합은 물론 다른 마을에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행복 농촌 만들기의 표본을 만들어가고 있다. 젓떼기마을 관계자는 “마을 만들기 활동 전에는 각자 생활 위주로 살아가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끼리만 어울리며 마을 사업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마을의 공동 자산에 대한 애정도 없었지만,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공동체 활동이 무엇인지도 비로소 알게 됐고 마을의 공동 자산을 늘리는 일이나 공동사업의 필요성도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송덕수 중앙일보M&P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전남 화순군 이서면은 폐교된 이서분교를 리모델링한 이서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방문객이 찾아오는 마을로 변화해 가고 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생활 체험과 생태친화적 교육·교류 공간으로 조성

농촌빈집·유류시설활용 우수사례 분야 금상 - 전남 화순군 이서면 이서커뮤니티센터

전남 화순군 이서면은 과거 두 개 면이 합쳐져 7500여 명이 살던 큰 면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시작된 이촌향도의 물결과 1980년대 후반 탄광의 폐광, 동북침 수몰 등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게 됐다. 이서면 아사리에 위치한 이서커뮤니티는 과거 화순 동면 중학교의 이서분교였으나 인구 감소로 2008년 폐교돼 다시는 후배들을 맞을 수 없게 됐다. 폐교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이서분교는 관리 소홀로 잡초가 무성할 폐건물로 방치됐다. 주민들은 마을의 소중한 추억이자 자원인 이서분교를 지키고 마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주민과 지자체는 매각 위기에 놓인 이서분교의 부지를 확보하고 커뮤니티 센터로의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했다. 이서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방문객이 찾아오는 마을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생각은 뽕모실 영농조합 법인의 설립과 이를 통한 다양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라는 아이디어로 구체화됐다. 마을 입구의 펜백나무 숲길을 따라 들어가면 무등산 자락의 자연이 숨 쉬는 뽕나무골, 뽕모실 마을을 만날 수 있다. 마을 어귀에서는 천연기념물인 500년 된 은행나무가 방문객을 맞이하고, 마을 안길에는 돌담과 한옥이 옛 시골 마을의 정취를 뽐내는 곳이다. 뽕모실 마을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진 잠업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뽕과 누에를 가공한 누에한·건누에·천연화장품 등 다양한 특산품이 생산되고 있다. 뽕모실 영농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산물 판매장

터인 ‘난장’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지역 특산물 판매대 마을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농촌 생활과 생태친화적 교육으로 어린이들이 자연의 가치를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 유학 프로그램과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먼저 살아보기’ 등으로 배움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에서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됐고, 화순 작별 축제의 가을 풍류 한마당, 흥겨운 놀이 한마당 등을 통한 문화 공유도 이어가고 있다. 이서커뮤니티는 주민 화합의 공간이자 방문객 쉼터, 교육 및 교류 공간, 지역경제 활성화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농촌과 농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점에서 이서커뮤니티는 행복한 농촌 만들기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김승수 중앙일보M&P 기자



전남 함평군 월야면 달맞이 문화센터는 11개의 주민 참여형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정보화 교육이 이뤄지며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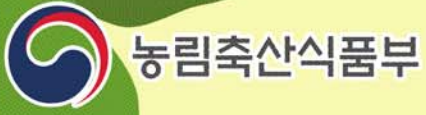
달맞이 문화센터, 무료 급식소... 주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

농촌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분야 금상 - 전남 함평군 월야면

달맞이 아름다운 마을 ‘월야면’은 전남 함평군의 제2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월야면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지난 2009년부터 빛그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곳이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향후 7000여 명 이상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오는 2026년까지 1만 호 주택 건설, 3만 명 인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을의 생활 기반시설 확충,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해 활력 있고 특색 있는 농촌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월야면은 소재지 정비 사업을 통해 조성된 달맞이 문화센터에 약 2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신축했다. 부지 매입을 위해 주민이 6700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또 사업을 통해 개발된 지역 브

랜드 ‘달빛월야’를 설계에 반영해 주민 참여형 건축물을 완성했다. 달의 곡선을 형상화한 센터는 365일 상시 개방으로 주민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구성되는 문화 프로그램은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요가·노래·사물놀이·라이덴스 등 11개의 문화·복지 프로그램과 정보화 교육이 진행된다. 상인회 및 28개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매월 1회 이상 문화행사 개최와 재능 나눔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을 운영 관리비로 확보하고 있다. 급식소에서는 65세 이상 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3회 무료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급식소는 연평균 5000여 명이 이용하며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과 연계 추진한 공공복

육당은 월야면 뿐 아니라 인근 해보면, 이산면 주민도 이용하며 연평균 5만 명 이상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쿠폰으로 대체하는 등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그 밖에도 월야면은 매년 추석 달맞이 가요제, 11월 재능 나눔 바자회, 12월 달맞이 음악회 등 한 해 동안 문화 동아리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며 공연·전시 등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행사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전액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 지원 및 시설물 운영 관리비로 활용한다. 월야면 관계자는 “달맞이 하면 월야, 월야 하면 문화가 떠오르도록 주민 행복을 1순위로 하는 전군에서 제일 행복한 농촌 만들기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덕수 중앙일보M&P 기자



청년여성,
농업의 **미래!** 농촌의 **희망!**

제 2회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2021. 10.15.
세종컨벤션센터



 YouTube에서 **농러와**를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